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 강소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국의 출석교인 5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형교회 목회자 및 성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호(성도편)와 다음 호(목회자편)에 걸쳐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에서 현재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보면 85%의 소형교회가 감소(42%) 또는 변화없음(43%) 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정체 국면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형교회 중 성장하는 교회는 15%에 그쳤다.

한편 예정통합교단 교세 현황(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교회 중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58%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미 소형교회는 한국교회의 주변이 아니라 다수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소형교회는 단순히 '작은 교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번 <넘버즈 324호>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교회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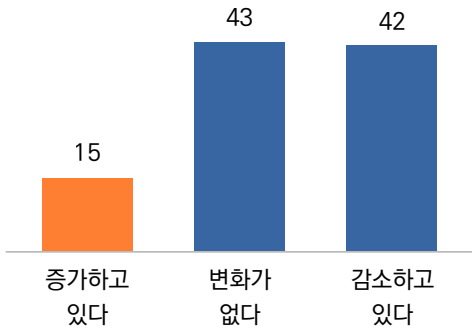
구 분	소형교회 성도조사	소형교회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00명(유효표본)	총 300명(유효표본)
조사 기간	2025년 09월 19일~2025년 10월 13일	2025년 09월 22일~2025년 10월 3일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소형교회 현황 및 사역]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 소형교회 성도에게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물은 결과, '감소' 42%, '변화 없음' 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쳐,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 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현재 출석교회 교인 수 상태 (소형교회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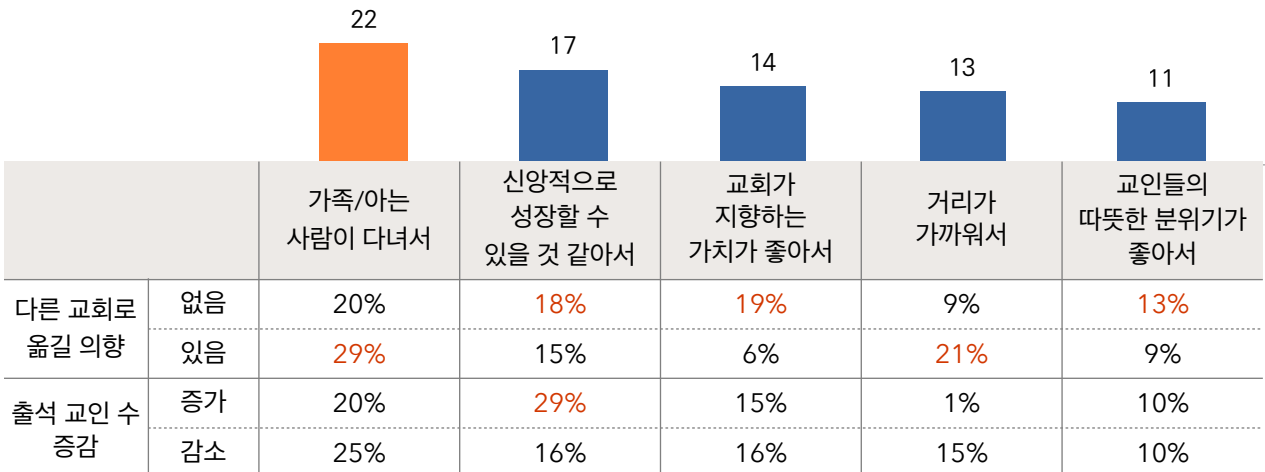


02

[소형교회 선택과 평가] 소형교회 출석 이유, '관계'로 시작해 '가치/따뜻한 분위기에 정착'

- 소형교회 성도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아는 사람이 다녀서'(22%)였다. 이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17%),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아서'(14%) 등의 순이었다. 인적 네트워크가 소형교회 유입의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보여준다.
- 단 '가족/지인'이나 '거리' 때문에 출석하는 성도는 '교회 지향 가치', '따뜻한 분위기' 등 교회 내적 매력에 이끌린 성도보다 타교회로의 이탈 의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소형교회가 성도를 붙잡는 힘은 물리적 접근성이 아닌, 교회만의 선명한 정체성과 따뜻한 공동체성에서 나옴을 시사한다.
- 한편 출석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경우 '신앙 성장'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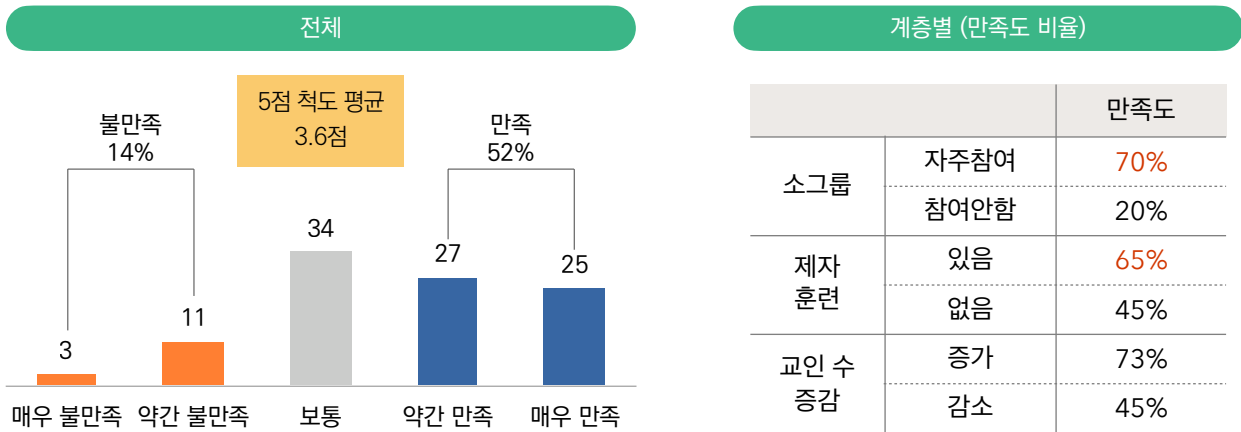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소형교회 성도, 상위 5개, %)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이 소형교회 만족도를 높인다

- 소형교회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매우+약간)는 52%였고, 5점 만점에 3.6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73%),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70%) 그리고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65%)에서 성도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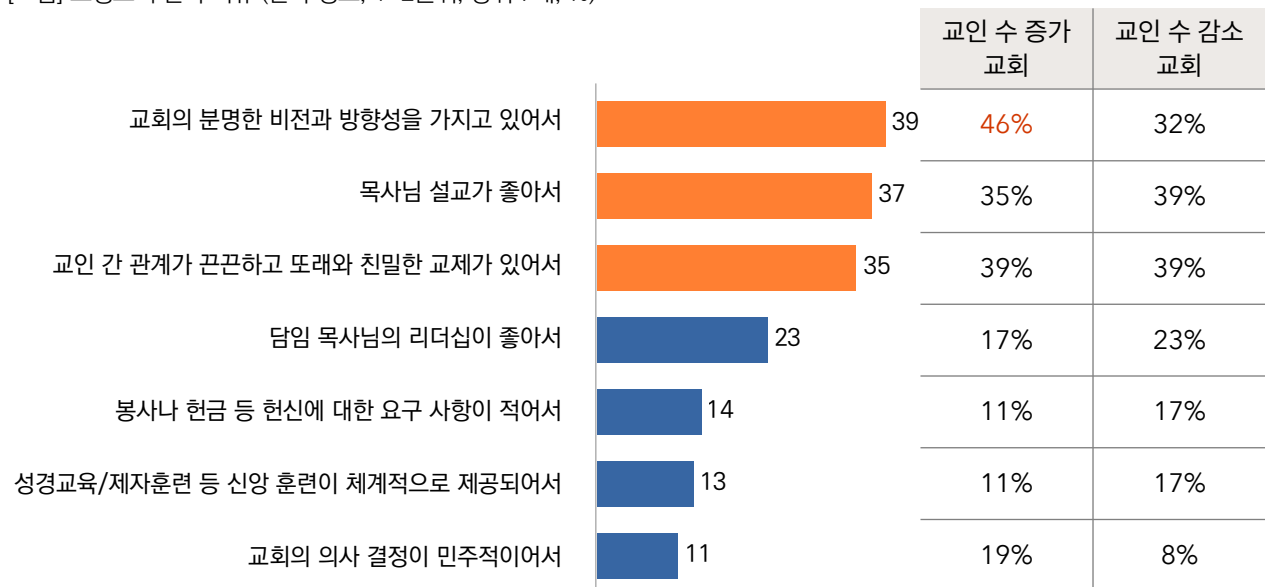
[그림] 교회 만족도 (소형교회 성도, %)



소형교회 만족의 3가지 핵심, 비전/설교/교제!

- 현재 교회 만족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39%), '목사님 설교'(37%), '교인 간 친밀한 교제'(35%)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 만족 요인이 어느 한 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방향성', '설교', '공동체성' 세 가지 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교회의 '비전' 요인이 만족 요인으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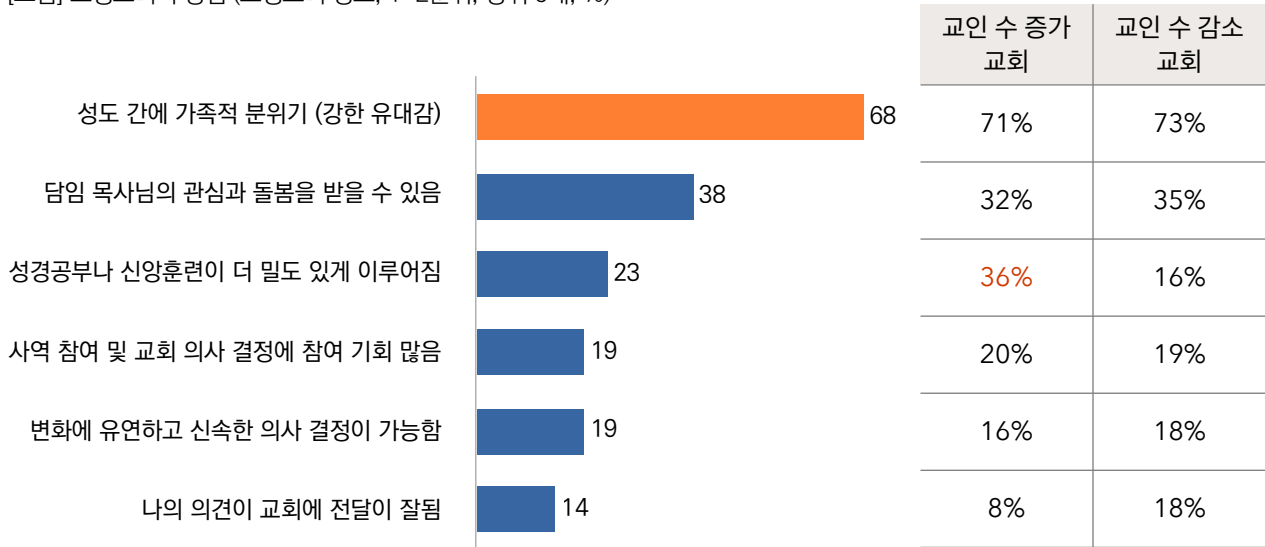
[그림] 소형교회 만족 이유 (만족 성도, 1+2순위, 상위 7개, %)



소형교회의 장점 → 강한 유대감!

- 소형교회 성도들이 체감하는 소형교회의 장점은 단연 ‘성도 간에 가족적 분위기’(68%)였다. 이는 2위인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음’과도 큰 격차를 보여, 소형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 내의 강한 유대감이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상위권에 랭크된 ‘가족적 분위기’와 ‘담임 목사님의 돌봄’은 성도들을 교회에 결속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신앙 훈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그림] 소형교회의 장점 (소형교회 성도, 1+2순위, 상위 6개, %)



소형교회 불만족 이유, ‘설교’와 ‘비전 부재’!

- 현재 교회에 불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앞선 만족 이유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32%)와 ‘교회 방향성과 비전’(28%)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나타났다.
- 이는 소형교회일수록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정체성이 성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임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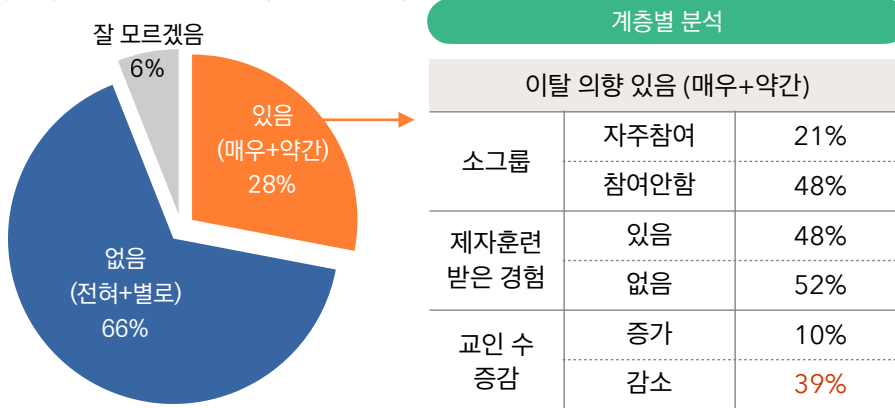
[그림] 소형교회의 불만족 이유 (불만족 성도, 1+2순위, 상위 7개, %)



소그룹 활동자/제자훈련 받은 자, 교회 안 떠난다!

- 소형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출석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성도 10명 중 3명꼴인 28%가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교회 이탈 의향률은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현재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제자훈련을 받은 자는 이탈의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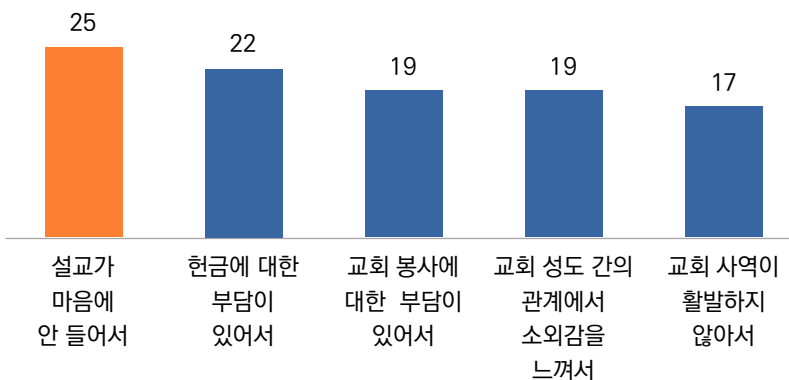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 이탈 의향 (소형교회 성도)



소형교회 이탈 이유, '설교 불만'!

- 교회 이탈을 고려하는 이유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25%), '헌금에 대한 부담'(22%), '봉사에 대한 부담'(19%), '관계에서의 소외감'(19%) 등 복합적 요인이 고루 나타났다.
- 이는 영적 공급과 사역적 의무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설교를 통해 영적 채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와 헌금의 의무만 가중될 경우, 성도는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보다 탈진과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교회 이탈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 (이탈 의향 성도,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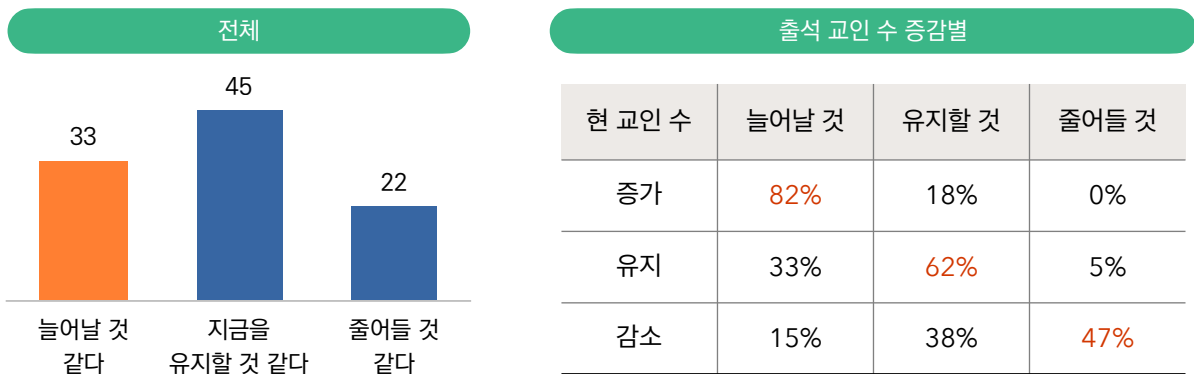


03

[소형교회 전망과 과제] 소형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화 예상!

- 앞서 현재 소형교회는 침체(42%) 또는 정체(43%)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출석교회 교인 수에 대한 소형교회 성도들의 전망은 어떨까?
- 향후 출석교회 교인 수에 대한 전망은 '유지할 것 같다'(4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감소'(22%)보다는 '증가'(33%)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11%p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현재 교회의 출석 교인이 증가하는 경우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반대로 감소하는 교회의 경우, 미래에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소형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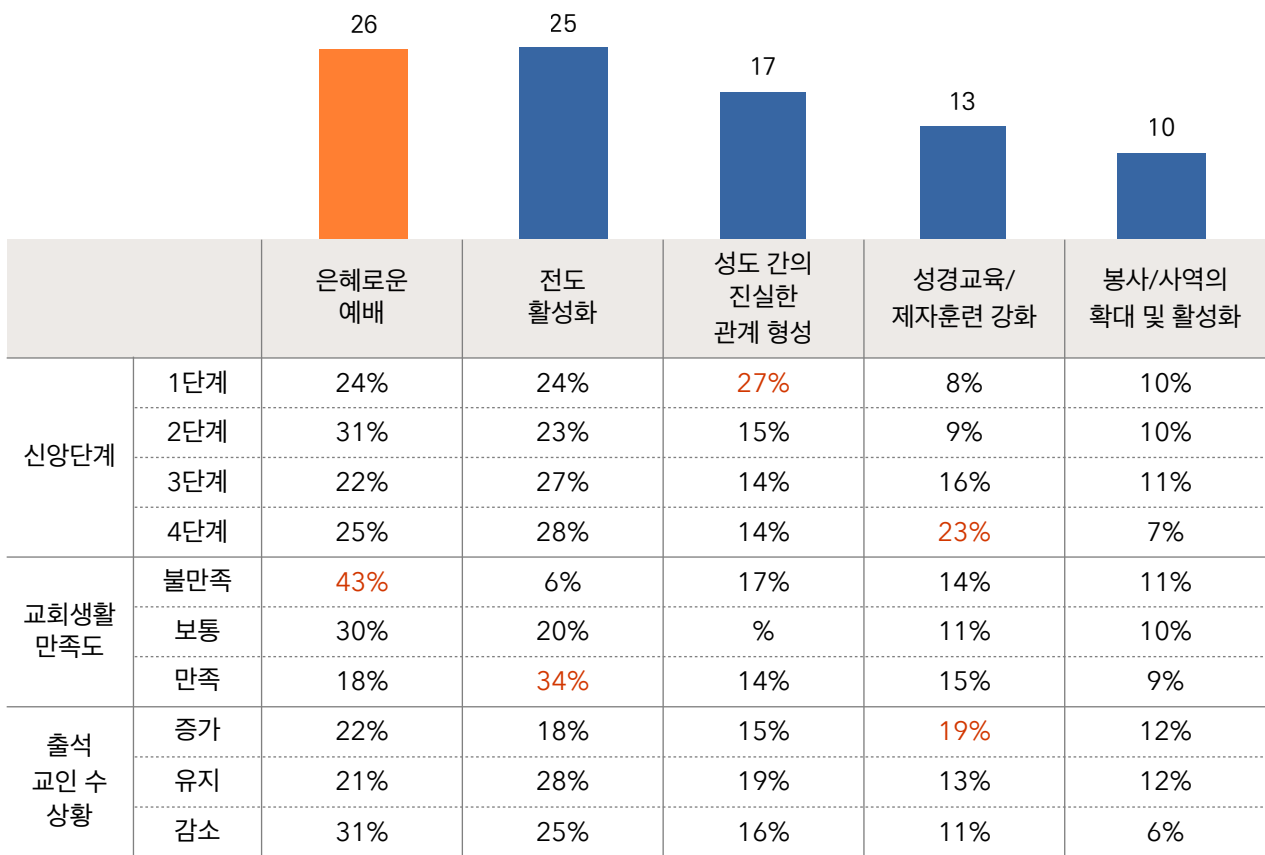
[그림] 향후 출석교회 교인 수 예상 (소형교회 성도, %)



향후 소형교회 강화 전략 ⇒ 예배와 전도 그리고 제자훈련!

- 소형교회 성도들이 꼽은 향후 강화 과제 1순위는 '은혜로운 예배'(26%)와 '전도 활성화'(25%)였다. 이는 소형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축이 내실(예배)과 확장(전도)에 있음을 시사한다.
-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 강화 포인트가 같았는데, 신앙 수준별로 보면 신앙 단계가 가장 높은 4단계 성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경교육/제자훈련 강화'(23%)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현재 교회 생활에 불만족하는 성도의 경우, 43%가 은혜로운 예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예배의 질이 성도의 만족도와 직결됨을 다시금 보여준다.
- 한편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성경교육/제자훈련 강화' 지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소형교회가 강화해야 할 점 (소형교회 성도, 상위 5개, %)



이번호 요약

1.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 소형교회 성도에게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묻은 결과, '감소' 42%, '변화 없음' 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성장하는 소형교회는 15%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 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 소형교회 만족의 3가지 핵심, 비전/설교/교제!

- 현재 교회 만족 이유로는 '교회의 분명한 비전'(39%), '목사님 설교'(37%), '교인 간 친밀한 교제'(35%)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3. 소형교회 불만족 이유, '설교'와 '비전 부재'!

- 현재 교회에 불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목사님 설교'(32%)와 '교회 방향성과 비전'(28%)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데이트 브라우닝 저, 옥당)

관련 성경 구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직면한 쇠퇴와 정체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도의 85%가 교세의 감소나 정체를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소형교회가 더 이상 '성장 단계의 과정'이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생존 전략을 갖추어야 할 '독립적 주체'임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정체 국면을 돌파하는 핵심 동력이 '작기에 가능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관계가 소형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하는 주요 이유이며, 소그룹/제자훈련이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 이탈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밀착 케어'가 주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도들의 불만족 이유가 '설교'와 '비전 부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성도들이 규모의 작음은 수용할 수 있어도, 영적 빈곤과 공동체의 비전/목적 상실은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형교회 목회는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에서 언급한 분명하고 명료한 비전 아래 소그룹/제자훈련 중심으로 성도들에 대한 밀착케어를 통해 '강소교회(強小教會)'로의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결국 소형교회의 회복은 숫자의 확장이 아닌 관계의 깊이와 영적 질에서 결정된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공동체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성도들은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해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구축할 때,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형교회가 생존하고 오히려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